



대행스님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 보낼곳: 우 110-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알 ● 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● FAX: (031)470-3116

길을 묻는 이에게

내 한생각이 법이 되어 만 생명 살린다

물질에 대한 집착을 비우려면..

문 대다수 큰스님들께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칩니다. 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도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그러는데, 사실 마음을 비우자는 것은 욕심을 버리자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설법을 들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서 물질을 딱 보면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.

답 근데 사실 알고 보면, 마음을 비운다 안 비운다 하기 이전에 이미 아주 탕탕 비어 있습니다. 본래 비워져 있습니다. 돈을 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가진 게 아닙니다. 재산도 자기의 추에 의해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. 그래서 여여하게 쓰고, 여여하게 사랑하고, 여여하게 들고 여여하게 보십시오.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, 그것도 이틈해서 부처가 되어 봐야 보살이 될 줄 알고 보살이 될 줄 알아야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. 이것이 참사람이요, 이를 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.

법신도 자기요, 보살도 자기요, 부처도 자기요, 중생도 자기입니다. 그렇다면 자기 태초의 모습이, 자기 오장육부의 세포를 타고 자기의 그 태초의 모습들이 자기 속에 지금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. 각양각색으로 말입니다. 그런데 자기가 선장으로서 한생각을 내면서 지금 여여하게 뱃놀이를

받은 게 없어요. 그건 왜 그러냐? 이렇게 절이 있어도 이게 내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동시에 나와 같이 여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.

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다 같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동시에 식구들 갖기 때문에 내 거라고만 할 수 없으니 그냥 놓고 사세요. 그냥 그대로. 만약에 이 우주 천하가 다 내 거라면 무엇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다니니까? 짊어지고 안 다니도 그냥 허허끼, 놀러간 게 바로 나고 내 생명이고 내 것이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꼭 공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. 자기 마음을 자아내려면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. 왜 자기를 낮게 생각을 합니까. 낮게 생각도 말고 높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.

부처님의 어느 제자가 아파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니가 부처님 법기를 아주 소망을 했습니다. 그렇게 소망하는 줄 알고는 부처님께서 그 아픈 사람에게 갔어요. 그 집에 가서 "졸 어리까"고 하면서 들어가니까 일어나려고 하잖아요. 일어나려고 하는데 "육신은 드러누웠으나 앉았으나 일어나나 상관이 없다. 네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고 그렇다면 벌써 일어나서 반길 수 있는 그 진정한 진실한 마음이 있노라."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"질을 삼 배 했느니라" 하시거든요.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? 우리네 마음이 말입니다. 그렇게 중

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

공덕이 하나도 없어

하고 가는데 아니, 소리를 못 지르나마, 노래는 하지 못하니까 왜 여여하게 가지 못합니까?

그러니 놓으라 하기 이전에 이미 놔져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다면, 지금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잔뜩 끼고 있어서 그렇지, 그러니 여러분의 탓이에요. 어디 가려고 걸어가는데 그 발자취가 남습니까? 그 발자취는 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왔기 때문에 없는 거지, 아마 발자취 하나 남는데 금은보화가 10억 붙어 있다고 그러던데 '아휴! 한 걸음에 10억씩 붙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...' 하고는 붙들고 있을 겁니다.

그러나 이거는 뭐 돈 내는 것도 없고, 돈 붙는 것도 없고,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가 그냥 태연하게 할 뿐입니다. 그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태연하게 그렇게 가십시오. 여러분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실 때 신발을 내가 벗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어 들어가십니까, 신발을 벗는다는 생각이 없어 들어가십니까? 똥 누러 갈 때 똥을 누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걸니까, 그렇지 않고 마려우면 그냥 뛰어 들어가십니까? 생각을 해보십시오. 똥 버리는 건 아깝지 않고 금 버리는 건 아깝거든요. 마음이 이렇게 괴상망측합니다.

내가 나를 한번 봅니다. 돈이 백만 원이 들어왔든 천 원이 있든 그것은 한 게도 없습니다. 여러분한테 한 게도 받은 예가 없고 준 예도 없습니다. 또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한 예도 없습니다. 주고

요합니다. 우리네 마음이 자기를 구명이에다 날 수도 있고 구명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여러분이 이론으로는 정말이지 저보다도 이 세상에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. 그러나 말로, 이론으로서 무뎠통지 하셔서 말을 함 잘하신다 하더라도 못하는 나만 못한 겁니다. 그 뜻을 아십시오. 열 번 백 번 만 번 말을 잘한다 해도, 또 물질적으로나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출몰을 지킨다 해도 이 무의 세계의 무무법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의 무무법은 두루 모습은 무궁무진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, 한 번 행할 때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.

그래서 한 번 행할 때에 주장자를 탁, 주장자가 동그렇게 말려서 가져다니는 사이 없이 가져다닐 때 주장자가 한 번 탁 이렇게 웅에도 따라서 들었다 하면, 쪽 퍼지면서 요란하게 소리가 날 때에는 우주간 법계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다 같이 호응을 해 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. 그러니 얼마나 좋고 자유로운 법입니까. 자유롭게 사십시오.

어떻게 한생각을 내야 하는지요?

문 주인공에 모든 걸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생각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한생각을 잘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한생각

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각자가 잘 살게 되고 또 회사가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회사에 한 사람만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나라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 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, 지금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, 마음으로서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가야 합니다. 그러니 깨우친다 안 깨우친다 이거를 따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겁니다.

여러분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좌절을 합니다.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.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'내가 중생인데, 이걸 안되지.'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 것입니다. 무엇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이라 해도, 그 일이 타인의 일이라도 그 일이 된다고 믿고 할 때는 제대로 돌



그림 · 최주현

을 잘하라는 말씀은 꼭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이 공의 나뭇잎인데 또 내가 따로 생각을 내야 되는지요?

답 주인공에 일체를 놓되 한생각을 잘하라 고 하는 건, 내 한생각이 약도 되고 선도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 한생각 법이 되어 만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. 내가 있기 때문에 참나가 있고, 참나는 근본입니다. 영원한 생명의 근본입니다. 근본은 우주의 근본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세요.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, 모든 것을 거기에 놓으십시오. 아는 것도 참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는 거지, 생각을 낼 수 없다면 목석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.

밝고 밝은 이 세상에 지금 인공위성이 오르고 또는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두루 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삽니다. 우리의 마음이 인공위성보다도 더 위대합니다. 빛보다도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우리의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보배라는 걸, 이 세상을 다 쥐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.

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각자가 잘 살게 되고 또 회사가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회사에 한 사람만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나라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 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, 지금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, 마음으로서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가야 합니다. 그러니 깨우친다 안 깨우친다 이거를 따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겁니다.

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인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,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.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기입니다.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,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의적인 일을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. 거짓도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잠시 거짓말을 한 거지 거짓이 아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해서 나와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, 타인의 욕채나 내 욕채나 똑같은 중생이기 때문입니다. 자기 중생

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도 이익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 한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.

폭력적인 의식의 정체

문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도 불합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면,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그냥 한탈숨에 달려가서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. 스님, 제 안에서 불쑥불쑥 생겨나는 이러한 폭력적인 의식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요? 분명 폭력이나 우격다짐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뺏속 깊이 알고 느끼면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 의식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.

답 어느 곰 부부가 살았습니다. 그런데 살다 살다 보니깐 짐승에서 진화되어서 아주 하얀 백곰이 됐습니다. 처음에는 얼룩덜룩하다가 깨달다가, 얼룩덜룩하다가 보니까는 회색이 되더니 점점 점점 백곰이 돼 버렸습니다. 그것은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지각이 생기고, 또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면 '아!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.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. 나를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알았구나.'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'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저 사람의 모습을 그려봤을까.'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그 곰 부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'나도 이렇게 숨어 다닐 게 아니라 저들에 나가서 활보하면서 살았으면...' 하는 그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.

그러자 어느 날 그 부부가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 모습 그대로 나왔더라고요.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 새끼가 사람 모습으로 나오긴 나왔는데, 새끼들이 금방 금방 자라더니마는 그저 짐승이고 뭐고 나가서 피를 빨아먹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냥 입이 시뻘건 게 입은 꼭 자기 입하고 똑같이 닮았더라고요. 그때에 곰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'아하! 사람의 거죽만 그랬지

내 거라고 할 게 하나도 없으니 그냥 놓고 살아가세요

아개 됩니다. 누가 공장을 처음 냈는데 '이게 이리하면 안되는데...' 할 때, 그 한생각을 탁 내 준다면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.

우리가 상대를 위해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, 내가 어떤 일이 있어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, 우리 한생각의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덮고 온 우주를 싸고, 아니 덮는 데가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생각의 능력입니다. 우리들이 마음을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 수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못 느끼고 못 믿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오기밖에 못 되었는데 나중에는 지혜가 넓어져서 자기까지 덮게 된다 이겁니다. 그렇게 차츰차츰 뛰어아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어던 안되니까 살면서 조그만 데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.

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인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,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.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기입니다.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,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의적인 일을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. 거짓도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잠시 거짓말을 한 거지 거짓이 아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해서 나와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, 타인의 욕채나 내 욕채나 똑같은 중생이기 때문입니다. 자기 중생

마음을 그리진 않았구나. 내 그 마음을 그려 보리라. 그러면 저 자식 대에는 진짜 사람이 나오겠지.' 하는 마음의 믿음으로서 항상 그 마음을 그렸습니다.

그리고 가다가 새끼들을 낳았을 때, 수컷도 낳고 암컷도 낳았는데 그것이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, 또 그 새끼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연방 일러 줬어요. 그래서 그 부부가 죽을 때 "나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러라고 해서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왔는데 너희들도 사람의 마음을 그려라. 첫째, 사람을 해치지 말고, 사람이 너희들을 해친다 할지 언정, 너희들이 해를 받는다 할 때, 바로 죽이지. 너희들이 너희 마음이 되고 너희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느니라. 그럼으로써 그 악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리라." 하고 말을 했습니다.

그러나 그 말은 해 줬지만은 짐승 같은 사람의 모습들은 자기 형체를 몰라요.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살다 보니까 참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는 또 그 사람에게 그 얘길 해 준 겁니다. "선조 대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우리가 낳느니라. 그러니 너희는 모습도 사람이요, 마음도 사람이니 남을 악하게 하지 말고 남의 피를 먹지 말고, 열심히 풀뿌리로써 연명하면서 살아라. 그리고 그저 너희들의 몸 속에 있는 털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만들어라."



그림 · 최주현

